

'일상서 여가' 구성에 3485억 투입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5조8309억... 10.9% 증가
통합문화이용권·예술인 생활자금 융자 등 2386억 지원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2019년 예산은 5조 83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5731억 원(10.9%)이 증액됐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9.7% 보다 높은 수치다.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3485억 원이 지원된다. 이어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문화향유 지원 강화 1732억 원,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653억 원, 맞춤형 지원 통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산업 육성에 132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은 ▲통합문화이용권(951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105억 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70억 원) 등을 포함해 1조 8041억 원을 편성, 올해 예산 대비 10.1% 증가해 부문들 중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한다. 체육 부문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및 장애인형 포함) (1,880억 원), ▲스포츠강화이용권 지원(247억 원),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75억 원),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60억 원) 등을 포함해 1조 4304억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예산 대비 21.9% 증가해 부문들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은 ▲근로자 휴가지원(105억 원), ▲열린 관광 환경조성(40억 원), ▲지역관광혁신센터 구축 및 산하관 혁신프로젝트 지원(25억 원) 등을 포함해 1조 4802억 원이 편성되어, 체육 부문과 비슷한 비중(24.9%)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문화콘텐츠 펀드 출자 (750억 원), ▲생활밀착형 문화지원 실험콘텐츠 체험관 조성(280억 원), ▲완성보증계정 출연(200

억 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66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8% 증가한 8270억 원이 편성되었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강조하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같은 제도적 변화에 따라 국민의 삶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여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통해 일상 속의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총 4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여가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①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② 소외·취약계층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증진을 중점과제로, 여가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③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④ 맞춤형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이를 토대로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되며, 문체부는 이번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



정읍 무성서원 전통교육 체험 자료사진.

'무성서원에서 선비정신을 묻다'

정읍시·국립전주박물관 공동주최, 4일부터 사진전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 이하 전주박물관)이 공동주최로 이달 4일부터 사진전 '무성서원에서 선비정신을 묻다'를 개최한다. 전주박물관에서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정읍 무성서원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바라보는 자리다.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은 조선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다. 그 가운데서도 서원은 지역 학문의 중심지이자 선비문화의 산실이었다. 최치원(崔致遠)을 기리는 무성서원은 선비의 멋과 풍류, 그리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면면히 담아내고 있다. 최초의 지치 규범인 향약(鄕約)이 여기서 퍼져 나갔으며, 아름다운 봄을 찬미하는 상춘곡(賞春曲)의 곡조 또한 무성의 땅에서 시작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제에

항거한 선비들의 의병 활동 역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전시에서는 무성서원의 면면을 살펴 볼 수 있는 10여 점의 다채로운 사진들이 펼쳐진다. 전주박물관은 특성화 사업으로 '조선 선비문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선비문화와 관련된 조사·연구·자료수집·전시 등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진전도 이러한 연계선상에서 무성서원의 풍경을 통해 옛 선비들의 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시에 수록된 사진들은 모두 전주 한지(韓紙)를 이용하여 인화한 작품들이다. 전통 종이 위에 펼쳐진 풍경과 함께 우리 옛 선비들의 풍류를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 '당선'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김진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8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에 당선됐다. 이로써 전북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명소를 연계한 고품격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섰다. 익산역은 최근 여행트렌드에 적합한 전라북도의 새로운 관광지를 포함시키고, 실제 관광객이 움직이는 동선에 맞춰 판매할 수 있는 여행상품으로 군산, 부안, 고창, 전주, 익산 일대를 포함한 '시간여행 : 서해금빛 길따라 떠나는 고무신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진행했다. 고무신(古撫新, 옛/고, 어투만질/무, 새/신)란 군산~선유도~변산반도로 이어지는 '서해금빛 길'을 거닐며 과거(古)와 현재(新)가 공존하는 관광지를 통해 근현대역사까지 되돌아보는 시간여행을 뜻한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팸투어는 첫째날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임피역을 시작으로, 군산의 관광명소인 경안동 철길마을, 근대역사박물관, 동국사 등이 있는 근대문화 거리를 탐방한 후 선유도 관광루트를 둘러보고, 둘째날 지역별 문화해설사와 함께 고창 고인돌 박물관 및 고창읍성, 전주 한옥마을 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익산 미륵사지, 교도소 세트장, 고스리를 관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진준 전북본부장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여행 공모사업에 코레일이 당



코레일 전북본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8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에 당선됐다.

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새로운 철도여행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대한민국 테마여행 상품(시간여행 : 서해금빛열차타고 떠나는 고무신투어)를 통해 전국의 관광문화자원을 품은 전라북도의 매력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상품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 부안, 고창, 전주, 익산 등을 정해진 3개의 코스에 따라 1박 2일 동안 둘러볼 수 있는 '시간여행 : 서해금빛 길따라 떠나는 고무신투어' 상품은 9월 8일부터 운영이 되며, 코

레일에서는 10%~30%의 열차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버스비, 입장료, 체험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이 상품은 전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풍부한 혜택을 제공하여 전라북도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품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및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에서 구매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익산역 여행센터(063-855-7715)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정읍시, 정읍시립국악단장에 주호종 단장 임명

정읍시는 지난 5월 왕기석 전 정읍시립국악단장이 임기 중에 사직함에 따라 그동안 공식 이던 국악단장에 주호종을 선임단장으로 임명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임명된 주호종 단장은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과 국립창극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중앙대 대학원에서 창극 '장끼전' 연출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전북대학교에서 연출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장끼전, 모듬전, 춘향만리, 광한부연가 춘향 등 다수의 작품을 연출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제2호 심청가 이수자로 2,000년도에 전국남도민요경창대회 명창부 최우수상을 수

상하기도 했다. 주호종 선임단장은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갖추어진 정읍시립국악단원들의 우수한 기량과 자신이 가진 열정과 경험을 최대한 접목하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단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시립국악단은 금년 하반기에도 '불우현정극인', '가족창극 쪽빛황혼', 국악단 보름밤 상설공연 등 크고 굵직한 공연들을 기획하고 있어, 단장 겸 연출능력을 갖춘 선임단장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